

영화에 나타난 재(災)의 양상과 미적도야 The Aspect of Disaster and Aesthetic Cultivation in Film

한영균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Young-Kyun Han(iniasio@naver.com)

요약

재난이 우리 인간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와 같은 재난이 다양한 예술 활동 중 미디어 예술에서는 작가의 창조적 자극 또는 그 계기로 작동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술을 통해 재난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미의식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영화 “더 임포서블”과 “해운대”에서 보여 지는 水災의 양상과 그것으로 인해 발현되는 사람들의 미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교육에서 ‘도야’는 주로 인격을 도야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자기 스스로 닦아 성찰하고 수양한다.’는 자기 교육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었고, 서구 근대교육에서의 ‘도야’는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으로 파악되며 각각의 인간이 자신의 개별성, 즉 인격을 점진적으로 뚜렷이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칸트의 미의 분석 또한 마음속의 유쾌함이라는 특수한 성질에서 시작되었다. ‘미’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개 와 같이 늘 깊이 존재하는 이유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미’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람들은 여러 사건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미에 도달하는 미적도야를 이룬다.

■ 중심어 : | 미 | 미적도야 | 미의식 | 자기 교육 | 예술 | 영화 | 유쾌함 |

Abstract

The negative influence by disaster on human's life could be so tremendous. I like to give attention to the disaster, considerable many cases, that disaster was used as stimulation or motivation for artist's creativity, especially in the film among various art activities. The reason I focus on disaster through art activities is disaster is closely related to human's daily life and also aesthetic consciousness. I like to look into the flood disasters' appearances described in the both films, <The Impossible> and <Haeundae> and the people's aesthetic consciousness expressed from the flood disasters.

In the traditional education of the East. 'cultivation' has been used as the meaning of self education which develops mostly one's personality by doing self practice, and self insight meditation. And In the modern western education, cultivation has been identified as the meaning of unique mission, that each human being expresses one's own individuality, that is personality, progressively.

I think 'the aesthetic' already immanence in human's mind. Analysis for The beauty of Kant is also starts from special nature, delightfulness. The aesthetic doesn't appears in sight easily because it always exists in one's bottom of heart like mist. That's the reason we try to reach to the aesthetic through the medium, that's art. Human can achieve aesthetic cultivation which reaches to the aesthetic by having lot of events and experiences in the process.

■ keyword : | Aesthetic | Aesthetic Cultivation | Self Education | Film | Pleasure Delightfulness |

I. 서론

산행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쌓아놓았을 돌탑을 만나게 된다. 이 때 거의 반사적으로 사람들은 탑 위로 자신의 소망과 의미 등을 담아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돌 하나를 더 얹는다. 탑에서 가장 무거운 돌은 어떤 돌일까? 실제 무게로 보면, 가장 밑바닥에 놓인 돌이겠지만, 탑을 쌓은 마음으로 보면, 맨 위의 가장 작은 돌 일 것이다. 사실적 측면에서 대상의 외형만 본다면 가장 밑에 있는 돌이 무겁겠지만 상상적 측면과 내면, 즉 그 이면의 본질을 본다면 가장 위의 작은 돌이 무거운 돌이 된다. 이렇게 사실적 측면과 상상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돌탑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 속 깊이 자리한 감정에 자극을 주어 미의식을 발현시킨다. 미의식은 이와 같이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발현될 수 있는데, 미의식을 발현 시킬 수 있는 것은 흔한 것, 평범한 것으로 사람들의 삶 주위에 언제나 산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은 돌도 사람들의 발에 걸린다면, 작은 재난이 될 수 있으며,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다양한 災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사람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미적요소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災의 요소로 변질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물’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미적 경험을 선사하는데, 노을 지는 강가나 바닷가, 사막의 오아시스, 폭포의 경관이나 분수 쇼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물’은 쓰나미나 홍수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삶을 무참히 파괴한다. 이와 같이 美와 災는 사람들 가까이에 밀접하게 존재하고 있다.

“태갑”에 이르기를 ‘하늘이 지은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으나, 스스로 지은 재앙은 살 길이 없다[1].’

윗글은 다른 사람이나 하늘을 탓하지 마라, 모든 재앙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뜻으로 “孟子” 公孫丑 上 제4장에 나오는 문장이다. “스스로 지은 재앙은 살 길이 없다.”는 부분은 災의 의미가 ‘나’ 또는 ‘생활’ 그리고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災의 양상은 현재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의식의 발현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災의 양상들이 창작자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부여한다.

영화 속의 재난을 다루기 전에 우선 대중적인 상업영화도 예술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해보자. 영화는 가벼운 오락물이라는 통념을 넘어 예술성과 상업성이 조화되고 결합되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이다. 배우 Tom Hiddleston은 인터뷰 중 “한국에서는 블록버스터 영화와 예술 영화를 구별한다는 점이 신기하다.”라고 말했다. 필자도 이 말에 공감한다. 감상자가 창작자가 창조해낸 작품을 보고 무한한 상상을 펼칠 수 있다면 ‘예술’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영화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하나의 영화 이론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접근 방식마다 이에 상응하는 영화 이론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미학적인 접근 방식이다. 미학은 예술적 현상으로 간주된 의미 작용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따라서 영화미학은 예술로서 영화의 연구인 동시에 예술적 메시지로서의 영화의 연구이다. 그것은 ‘미’의 개념과 또한 이론가와 마찬가지로 관객의 취향과 쾌락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예술 장르 전반에 관련된 철학의 영역인 일반적인 미학에 의존한다[2].’

이처럼 영화는 미학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예술적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災를 주제로 한 영화 “해운대”와 “더 임파서블”을 대상으로 재난의 예술화와 그 유형을 살펴보고, 재난 예술이 어떻게 인간의 심리적(미적) 상태와 美의 실천, 즉 미적도야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함으로써 지금의 사회문제, 현실과 허구사이를 진동하는 미적 의식에 접근하고자 한다.

II. 재(災)의 의미와 현대적 해석

災는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그 사건이 인간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재난은 국가나 한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사건들을 의미한다. 일단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면, 災難(재난)은 災殃(재앙), 인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人災(인재) 등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이로 인한 영향이나 피해를 災害(재해), 災厄(재액)이라고 표현한다. 전통적으로 災라고 하는 글자의 개념을 살펴보면, 옛 사람들은 주로 시냇가나 큰 강가에 부락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홍수였는데, 중국의 건국신화에서 이런 부분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실수로 뇌공에게 제물을 잘못 바치게 된다. 이 일로 몹시 화가 난 뇌공은 비를 내리지 않게 되고 지상은 모든 것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다. 보다 못한 고비는 뇌공이 다스리는 하늘에서 비를 흠쳐다가 사람들과 지상의 생물들을 구한다. 그러자 더 화가 난 뇌공은 형인 고비에게 싸움을 걸지만 결국 고비에게 패해서 뇌공은 쇠조롱 속에 갇히게 된다.…… 복희와 여와 남매가 집에 남게 되자 아니나 다를까 뇌공이 두 남매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한다. 하도 간곡한 부탁에 두 남매는 물을 주는데 그 물을 먹은 뇌공은 힘을 되찾아 쇠 조롱을 부수고 나온다.…… 뇌공은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비를 담당하는 신을 불러 밤낮없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한다. 그러자 순식간에 세상은 큰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고비를 포함해 땅 위에 모든 것을 휩쓴다.…… 홍수가 물리간 뒤에 밖에서 나왔지만 이미 모두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라곤 오직 복희와 여와 남매였다[3].”

물이 흐르는 곳에 문명이 서고 생명이 자라듯 물은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홍수 신화의 모티프에 의하면 물은 재앙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물의 이중적 이미지는 인용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복희와 여와 남매도 결국 물과 이중적 관계를 맺는다. 물의 재앙을 극복해야 했지만 결국 물을 매개로 생명을 얻는 이러한 홍수 모티프는 불이 인류에게 문명을 가져다주면서 동시에 재앙(불의 심판)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홍수와 화재의 특징은 災(재)라

는 문자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본래 災는 갑골문자에 윗부분인 ‘ㄱ(천)’으로만 표시 되어 있었다. ㄱ은 물결 모양을 추상화한 것인데, 이는 홍수의 모양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여기에 지붕과 기둥을 상형한 ‘ㄷ(면)’과 타오르는 불꽃의 상형인 ‘火(화)’를 더한 災(재)가 출현하였다. 이 글자에는 불길이 집을 삼키는 장면이 형상화 된 것이다. 災는 바로 이 두 글자의 의미를 합하여 나타낸, 수재와 화재 등 모든 災를 포함하는 글자이다[4]. 이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재난의 개념은 災로 인한 難, 곧 예기치 못한 변고나 천재지변(災)으로 인해 인간이 받는 고통, 고난(難)의 모든 상황을 뜻한다.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적재난·자연재난·국가기반 재난을 말한다[5].”

오늘날의 ‘재난’은 건설교통부에서 정리한 세 가지 종류의 재난에 포함된 각종 재난을 의미하고, 또한 동시에 개인에게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도 포함한다. 물론 국가적인 재난도 개인의 재난을 포함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재난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재난은 개인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 질병, 각종 사고 등 개인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을 불러오는 모든 사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통 시대 재난의 개념과 현재의 재난 개념의 다른 부분도 있다. 현재의 재난은 환경오염, 대형 폭발, 방사능 유출 등 과학의 발달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를 포함하지만, 과거에는 월식, 일식, 혜성 등과 같은 재이(災異)도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을 과거 詩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십이월 초하룻날 일식을 보고[十二月朔日蝕][6]

陰陽消息理冥冥

음양의 변화 이치가 오묘하니

更有何辭問缺盈

다시 무슨 말로 차고 기우는 변화 따지랴

無可奈何看漸既
 어쩔 수 없이 점점 해가 이지러지는 것 보는데
 擊鉦猶以救爲名
 징을 두드리며 외려 재난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삼네
 眩眼不堪天上望
 눈이 어지러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低頭唯向水中窺
 머리 숙여 물속의 그림자만 들여다보네
 下臣得可安然坐
 신하로서 어찌 편히 앉아 있을 수 있으랴
 還跪焚香到復時
 무릎 꿇고 분향하며 끝나도록 앉았도오.

이 시는 李奎報(이규보)(1168~1241)가 일식을 보고 느낀 소회를 읊은 작품이다. 과거에는 일식이 인간의 그릇된 행위에 대한 하늘의 경고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하였다고 한다. 위의 시를 보면 “눈이 어지러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머리 숙여 물속의 그림자만 들여다 보네” 이 부분은 일식을 하늘의 경고로 인식하여 두려워하는 부분으로 일식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만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점점 해가 이지러지는 것 보는데, 징을 두드리며 외려 재난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삼네” 백성을 지켜야 하는 나라가 징을 두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무력함에 한탄하고, “신하로서 어찌 편히 앉아 있을 수 있으랴, 무릎 꿇고 분향하며 끝나도록 앉았도오.” 자신 또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에 한탄하는 부분으로 과거의 재이(災異)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자연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홍수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을 인재, 즉 인간이 환경의 오염과 자연 파괴로 인한 인과응보의 대가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재난이 우리 인간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재난이 일상적인 삶에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와 같은 재난이 다양한 예술 활동

중 미디어 예술에서는 작가의 창조적 자극 또는 그 계기로 작동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영화와 같은 미디어나 예술 매체 등이 존재하지 않던 과거에는 성경의 “노아의 방주”, 피렌체 산타마리아 노벨라라는 인상적인 교회에 있는 파올로 우첼로(1397-1475경)의 “홍수”, 지오반니 바티스타 프란코의 “홍수” 그리고 다양한 시나 노래 등이 사람들의 미의식에 자극을 주었다. 그렇다면 왜 예술은 재난에 주목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홍수나 가뭄과 같은 天災와 질병과 같은 또 다른 성격의 天災, 그리고 새로운 생산구조가 이식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산업화에 의해 생겨난 產災 등은 기층 민중들의 삶을 근저에서 뒤흔드는 말 그대로의 ‘災難’이었다. 예상할 수는 있으나 피할 수는 없는 ‘災難’은 자연의 도저한 섭리가 빚어 낸 자연현상으로서의 ‘災害’ 또는 ‘災殃’에 머물지 않고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 ‘苦難’과 ‘受難’을 예비한다. 예술이 이 ‘재난’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로서의 재난’이 아니라 개인들의 삶의 미세한 감각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삶의 제반 조건들의 가치를 근저에서 되묻지 않을 수 없도록 극한까지 치닫는 고통과 수난이 병존하는 삶의 공간이기 때문이다[7].

이처럼 예술이 재난에 주목하는 이유는 재난이 우리의 삶의 행복, 불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같은 작품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보여줌으로써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더욱 올바르게 살아가고 신이나 군주를 잘 섬겨야 한다.’는 즉 규율, 법이 명확하지 않던 시대에 사람들을 제어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 예로 장언원(張彦遠, 815~879)은 『역대명화기』에 “무릇 그림이란 것은 교화를 이루고 인륜을 돕고 신비한 변화를 궁구하며, 세밀한 도리를 측량하고, 육적六籍과 功을 함께 하며 사계절과 나란히 운행되는 것으로 이것은 天然에서 나온 것이니 述作에서 연유하지 않는다[8].” 라고 하여 회화를 통한 교화를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다. “成教化, 助人倫”은 유가적인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인격의 덕德과 인仁을 닦은 연후에 예술

을 하여야함을 주장하였다. 『禮記』에서도 “덕이 이루어진 사람은 윗자리에 있고 기예가 완성된 사람은 아래에 있다[9].” 하면서 인격의 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聖인이 성인의 道를 창작하는 것을 예술이라 하였다. 따라서 자기가 성취한 덕이 밖으로 드러나는 문체가 예술이요, 회화는 자연의 道와 성인의 道를 그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10]. 즉 인격 또한 ‘美’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면, 예술은 감상자에게 미적도야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창작자 또한 미적도야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술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여러 예술이나 미디어 등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의 미의식에 강한 상처와 같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러한 강한 상처에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창작자들은 좀 더 극단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려하고 있다.

III. 영화 속 災의 요소와 미적도야

1. 미의 발현과 미적도야

‘美’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칸트의 미의 분석 또한 마음속의 유쾌함[11]이라는 특수한 성질에서 시작 되었다. 영화 “더 임과 서블”에서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확장이나, “해운대”의 ‘동춘’이라는 인물의 행동변화에서 보이는 면만 보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미’가 어떻게 발현되고 실천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의 미를 발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매개체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불투명 유리 뒤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희미한 무의식 속에서 ‘미’를 느끼고 있다. 영화 <지구가 멈추는 날>[12]에서 인간과 다른 존재인 주인공이 자기보다 먼저 온 동족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의) 비극은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은 안다는 걸세. 느끼고 있지.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네[13].” 이 대사처럼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미를 발현시키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미’는 존재하고 있는데, 깊은 안개 속에 있어 희미하게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접근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미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매개체가 ‘예술’이다. 프리드리히 실러(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14]는 감각적 지각과 이성적 통찰, 이성적 통찰과 의지,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중재하는데 예술이라고 부르는 대상보다 더 적합한 것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15]. 이와 같은 것들을 ‘미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즉 예술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미적 사건과 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필자는 미적의식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미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결국 일상에 주목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미의 요소는 우리의 삶 주위에 산재되어 있고, 미적 상황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어떠한 삶의 상황에 대한 주체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적인 것에 대한 개념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작용하는 미적 관점을 연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상적인 삶에서 ‘미적’이라는 것은 체험의 질, 즉 감흥에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적 의식을 단순히 감흥과 동일하게만 볼 수는 없다. 때로는 미적 의식을 위해 대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예술 작품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의 ‘샘’은 남성용 소변기를 전시장에 가져다 놓음으로 감상자들이 그것과 예술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상황을 유도하였다. 감상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사유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미적 의식은 주체의 이성이 주도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이라고 해서 모두 즐거움과 유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슬픔이나 공포, 공허함도 제공하며, 그것을 유희화 시키고, 사람들의 미의식에 영향을 끼친다.

로베르토 베니니(Roberte Benigni)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제목과는 달리 실은 비극적이고 잔인한 전쟁과 파시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화의 감동적인 막이 내렸을 때, 누군가는

“인생은 잔인하지만 아름다워”라고 한숨짓는다.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흔히 아름다운 것의 반대는 추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미의식에서는 ‘옳지 않은 것’, ‘더럽혀진 것’, ‘촌스러운 것’, ‘시끄러운 것’,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등도 아름다움의 반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 ‘깨끗한 것’, ‘세련된 것’, ‘적막한 것’, ‘감동을 주는 것’을 아름답다고 여길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미의식은 선악 개념을 넘어 존재하거나 선악 모두를 포괄하는 것 안에서 ‘미’를 찾아내고 유희화 될 수 있다.

실리는 예술에서 즐거움을 찾는 미적 놀이(유희)의 실천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미적 놀이(유희)가 이성과 감성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 다음은 실천의 문제였다. 미적 놀이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감각충동은 규정되기를 바라며 대상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형식충동은 스스로가 규정하기를, 자신의 대상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놀이충동은 자신이 만들어낸 모습 그대로를 느끼고자 하며, 감각이 받아들이기 원하는 모습 그대로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16].”

그가 위에서 감각충동과 형식충동에 이어서 말한 놀이(유희)충동은 인간에게서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상적인 인성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미적 놀이(유희)를 인간의 다른 각각의 충동과 결합시켰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놀이(유희)충동[17][18]이다. 유희충동은 미적 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충동이다[19]. 타인에게 무관심한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서 미적 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 즉 미적 행동은, 단순히 인격적,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미적상황[20]에서 ‘미적의식[21]’을 가지고 ‘미적사건’을 겪으며 미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미적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의 마음속에 유쾌함, 만족감, 충만함과 같은 감정으로 보답해 준다. 칸트는 이것을 ‘미’라고 했고, “老子”, 왕필(王弼) 주(注), ‘고일총서(古逸叢書)’본에서는 “미란, 사람들의 마음이 나아가 즐거워하

는 것[22].”이라고 했다. 이러한 유쾌함은 즐거움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교육 시키고 자신의 마음도 치유한다. 예술에 의해서 미를 발현시키고 그로 인해 생긴 유쾌함으로 스스로를 교육시켜 치유하는 것, 즉 ‘미적도야(陶冶)’를 통해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다.

도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통교육에서 도야라는 말은 주로 인격을 도야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자기 스스로 닦아 성찰하고 수양한다.’는 자기 교육의 의미로 흔히 사용된다. 특히 선불교에서의 도야란 무명의 마음을 닦아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명상수행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23]. 주자도 거경궁리(居敬窮理)와 선지후행(先知後行)을 말하고 그 격물궁리(格物窮理)의 목적하는 바가 소당연(所當然)의 법칙을 궁구하여 소이연(所以然)으로 활연관통(豁然貫通)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구 근대교육에서의 “도야[24]”는 독일 신인본주의 교육사상에서 그 단어가 지니는 특수한 교육적 의미를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도야라는 말은 교육과 유사한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도야란 근대 일본이 독일 교육학의 “Bildung”을 도야로 번역한 것인데, “Bildung”은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으로 파악되며 각각의 인간이 자신의 개별성, 즉 인격을 점진적으로 뚜렷이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도야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그 근본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상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25]. 도야란 인간 자신의 본성과 본질을 강제로 변화시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사유하고 획득하는 과정이다.

“도야는 인간에게 본래 주어진 능력들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계발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때 이 능력들은 보편적 이상의 완성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인간 각각의 고유한 방식으로 인류 전체를 형성하고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도야개념에는 개별적 인간과 인류 전체 사이를 힘들의 협동작용으로 파악하는 형이상학적 근거가 내재되어 있다. 도야는 각각의 개별적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만 성취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계발함으로써 각자에게서 개별성의 이념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다. 도야는 인간에게 주어

진 고유한 사명으로서 각 개인이 자신의 개별성을 점진적으로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지 자신의 존재를 그 근본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상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도야는 다른 사람의 개성과 혼동되거나 반복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고유함을, 즉 인격을 내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개성에서 그 절정에 달한다[26].”

현대적 의미의 도야는 개별적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식·능력·기술을 습득하는 정신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소질이나 능력을 개발하여 마음속의 ‘미’를 바람직한 像으로 형성하는 과정이다. 미적상황에서 미적의식을 가지고 미적사건을 겪고 미를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의 영향이 사람들에게 긍정적 인 반응으로 돌아오는 것, 그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이것이 “미적도야”이다. 이러한 미적도야가 영화 속에서 어떠한 방식과 매개를 통해 재현되고, 사람들의 미의식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 “더 임파서블[27]”의 災와 미적 도야

영화 “더 임파서블”은 2004년에 태국에서 발생한 쓰나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실적 재현에 초점을 두고, 그 현장에 있었던 한 가족의 생활을 모티브로 전개된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엄마이자 아내인 마리아, 헨리 또한 회사와 가족의 부양을 걱정하는 오늘날의 남편, 아버지이다. 그리고 보통의 사춘기 소년인 큰 아들 루카스로 이루어진 이 가족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의 전형을 보여준다.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던 이 평범한 가족이 상상하지 못했던 쓰나미는 맨 몸인 그들을 덮는 데 참사를 만들어 낸다. 서로의 생사 조차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더 임파서블”은 주인공들의 일상적인 모습보다는 영화 초반부터 쓰나미를 강하게 보여줌으로써 쓰나미가 밀려오는 상황과 지나간 후의 상황에 중점을 둔다. 영화 속에서 사람들의 미의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소는 쓰나미, 가족 그리고 ‘이름’이다. 이 영화 속에서 ‘이름’은 단순히 상대방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미적도

야의 과정으로 보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름’이란 매개체로 영화 속 인물들을 연결시키고, 행동의 이유를 ‘이름’이라는 단어에서 관객들의 호응과 감정에 자극을 이끌어 내면서 ‘이름’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확인 할 수 가 있다. 성명학에서도 성명(이름)은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대표한다고 했다.

“인간의 성명은 그 개성의 영혼과 육체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명에는 개성의 영(靈)이 깃들이게 된다. 즉 성명은 자기 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영은 육체내 내재하여 명령하게 되는 것이니, 성명은 진실로 영육의 대표가 아닐 수 없다[28].”

이처럼 성명, 즉 사람의 이름은 단순히 상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초월적인 시점에서 인식하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름의 역할을 영화에서 찾아보자.

쓰나미가 지나간 후 마리아와 루카스는 현지주민들에게 구조되어 인근의 구조센터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은 부상자와 가족의 이름을 크게 또는 애절하게 부르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구조센터시설의 열악함은 감상자들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루카스는 아버지와 두 동생의 행방을 찾는다. 그러던 중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한 인물을 만나게 되고, 구조센터에 들어 갈수 없었던 그는 애절하게 아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찾아달라고 부탁을 한다. 자기와 비슷한 처지, 동정, 연민일까, 루카스는 이름을 받아 적고 찾아 나선다. 그의 아들을 찾는 와중에도 루카스는 사람을 찾아달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처참함 모습의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구조 센터 구석구석을 찾아다닌다. 그러던 중 그의 아들을 찾게 되고 루카스 또한 가슴 한구석에서 일렁이는 감정을 경험한다. 즉 미적 사건을 통해 미적 경험을 하고,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 다시 말해서 미를 행함으로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마음도 치유하는 미적도야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은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루카스는 자신이 적었던 이름들을, 마리아는 자신의 팔에 적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막을 내린다.

영화에서 ‘이름’은 주인공들의 미의식에 영향을 주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자신의 힘든 상황에서도 사춘기 소년 루카스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이름을 적고 도와주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어떠한 이유로 처참한 상황 속에서 타인을 도울 수 있었는지를 관객들도 영화를 보면서 자신이 처러한 상황에 처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자신들 또한 저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을 영화 속 인물에 자신을 투영해 보면서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더 임파서블”은 사실을 근거로 재현한 영화이다. 그래서 영화 속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웅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현장의 처참함과 절규와 고통이 영화의 대부분을 이루는데, 이것은 실제의 사건을 기초로 영화를 그 현장감과 메시지를 관람자들의 피부에 꼭꼭 박히듯 그대로 전달한다. 이러한 사실감은 관람자들을 영화 속으로 던져놓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사실을 미적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이 영화라는 매개체는 관람자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안개를 치워 줌으로써 조금 더 ‘미’에 대해 생각하고 발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3. “해운대[29]”의 災와 미적 도야

영화 “해운대”는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가 한반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상상을 재현한 영화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사람들이 사는 실제의 공간과 융합시키면서 두려움과 공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지만, 극복의 과정 또한 사람들의 감정에 강한 자극을 준다.

영화 “해운대”에서 보이는 인물은 각각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오랜 짝사랑 끝에 사랑을 고백하려는 만석과 갑자기 해운대에 들이닥친 쓰나미로 인해 미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연희, 어느새 7살이 된 딸을 처음 만나게 됐지만 차마 자신이 아빠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김희와 쓰나미를 통해 잃고 있었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유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구조대원 형식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희미, 어머니의 소원대로 생애 처음 면접을 보기로 결심

한 날 쓰나미에 맞닥뜨리게 되는 동춘까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일상의 에피소드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영화 속 ‘쓰나미’와 각각의 ‘인물’들의 관계는 갈등과 행복의 순간을 극대화 또는 해소시키는 장치로 쓰이며 쓰나미로 인해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미적도야의 양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해운대”에서는 ‘인물’의 재난 상황을 통해 사람들의 미의식에 영향을 주기에 효율적이고, ‘영웅’, 목숨을 걸고 가족이 아닌 타인을 구하는 희생으로 일관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영화 “해운대” 속에는 존재하고 있다. 영화 속 인물 중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동춘’이다. ‘동춘’이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말종’이다. 어린 아이를 겁박해 장님 행세를 하는가 하면, 어머니를 무시하는 행동과 돈이 되는 일이라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는 ‘동춘’이라는 인물은 영화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을 구해 용감한 시민 상을 받기까지 하지만 어머니를 잃고 우는 장면은 씁쓸하다. 어떻게 ‘미’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할 것 같은 동춘은 이러한 미적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알랭(Alain, 1868~1951)은 미의 속성에 대해 말하기를 “미는 증명되지 않는다[30].”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미는 확인 보다는 증명의 대상으로서 추론에 의해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성질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동춘”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연민으로 인해 미를 발현 시켰고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즉 사람들이 위험에 빠져있는 상황, 미를 발현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미적의식을 가지고 미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떤 사람이든 ‘미’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를 발현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술 작품의 미를 발현시키는 기능적 요소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개와 같이 늘 깊이 존재하는 ‘미’를 찾아 가게 해줄 수 있는 것, 지도의 역할이 예술의 기능이다.

IV. 결론

시대가 발달하면서 여러 매체와 미디어들은 빠르고

현실감 있는 정보의 전달에 중점을 두고 발전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많은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수집할 수 있고, 예술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술에서 재난의 재현은 예술작품과의 거리감을 조금 더 좁히고, 예술을 통해 미를 발현하는 기능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 2008년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저녁 텔레비전을 통해 송례문 화재현장을 보았다. 필자는 송례문 소설의 안타까움과 슬퍼했던 기억이 난다. 요즘은 아동 성폭행의 대한 문제도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 또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예술을 통해 미적도야에 이르는 것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러는 “미학 편지”를 통해 미적 교육을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 개별적인 존재가 변화되어야 참다운 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인간 개별적인 존재가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사회도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인간 개혁의 방법으로 미적 교육을 제시하였고, 미적 활동을 기초로 하여 미적도야에 이르는 것은 현대인들이 공존하는 삶 속에서 치유를 통한 조화로운 인간교육이 목적이다. 이와 같은 인간 특성을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것이 ‘美’라 제시했다[31]. ‘美’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개와 같이 늘 깊이 존재하는 이유로 그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미’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람들은 여러 사건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미에 도달하는 미적도야를 이룬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는 마지막까지 연주를 하고 있었던 연주자들은 배가 침몰하는 재난 중에도 어떤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연주를 하며 자리를 지켰을까? 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공포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미적행동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미적도야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孟子” 公孫丑 上, 4章, 太甲曰, 天作孽, 猶可違, 自作孽, 不可活.
- [2] 자크 오몽, 영화미학, 이용주 역, 동문선, p.21, 2003.
- [3] 정재서, *이야기 동양신화*, 황금부엉이, pp.56-59, 2004.
- [4] 김인중, *한자의 뿌리 2* 문학 동네, pp.790-791, 2001.
- [5] 건설교통부, *건설교통재난대책편람*,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안전정책과, p.3, 2004.
- [6] “東國李相國集”, 제2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해당 자료의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을 참고 하였다.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7] 서형범, “홍수의 서사화를 통해 본 재난서사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6집, p.79, 2012.
- [8] “歷代名畫記, 卷一”, 夫畫者, 成教化, 助人倫, 窮神變, 測幽微, 與六籍同功, 四時並運, 發於天然, 非繇『書畫譜作由, 下同』述作.
- [9] “禮記”, 德成而上 藝成而下.
- [10] 이소영, *인물화의 사의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4, 2006.
- [11] 이중텐, 광수경 역, *이중텐 미학강의*, 김영사, p.103, 2009.
- [12] “The Day the Earth Stood Still”, 2008作, Scott Derrickson 감독의 미국 영화.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외계에서 온 존재와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
- [13] “The Day the Earth Stood Still” 2008작, 대사에서, ‘The tragedy is they know what’s going to become of them. They sense it. But they can’t seem to do anything about it.’
- [14] 이화식, “실러에 근거한 미적 교육 방안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제32호, p.31, 2012.
- [15] 김문한, *예술과 윤리의식*, 소학사, p.185, 2003.

- [16] 프리드리히 실러, 안인희 역, *미학 편지 -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실러의 미학 이론*, 휴머니스트 출판 그룹, p.122, 2012.
- [17] 이화식, “실러에 근거한 미적 교육 방안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제32호, p.33, 2012.
- [18] 프리드리히 실러, 안인희 역, *미학 편지 -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실러의 미학 이론*, 휴머니스트 출판 그룹, p.123, 2012.
- [19] 이화식, “실러에 근거한 미적 교육 방안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제32호, p.33, 2012.
- [20]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p.128, 1995.
- [21]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pp.128-129, 1995.
- [22] 왕필, 노자주, 2장, 美者, 人心之所樂進也.
- [23] 정혜정, *서산 휴정의 삼가귀감에 나타난 심성 이해와 마음도야, 치유와 도야, 마음의 실천적 이해 공동체*,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 연구소, p.254, 2013.
- [24] 빌헬름 폰 훔볼트(1767-1835)의 도야 이론은 신인본주의 교육운동을 주도하는 사상과 이론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도야 이론의 시대적 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인본주의의 등장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25] 정영근, “도야 개념의 현대 교육적 의미”, *인문과학연구*, 제14호, p.3, 2004.
- [26] 정영근, “도야 개념의 현대 교육적 의미”, *인문과학연구*, 제14호, pp.3-4, 2004.
- [27] 영화 “The Impossible”, 감독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2012작품.
- [28] 김백만, “성명학(姓名學)에 대한 인식”, *새국어생활*, 제1권, 제1호. p.116, 1991.
- [29] 영화 “해운대”, 감독 윤제균, 2009작품.
- [30] Alain, *Systeme des Beaux - Arts*, Gallimard, “le sentiment du beau,” p.10, 1926.
- [31] 이화식, “실러에 근거한 미적 교육 방안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제32호, p.43, 2012.

저자 소개

한영균(Young-Kyun Han)

정회원



- 2002년 2월 :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과(학사)
- 2008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화과(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 재학

<관심분야> : 회화, 영상, 영화, 미학, 교육